

◆ 미 수은, 멕시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6,800만 달러 지원

미 수은은 멕시코의 San Fernando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6,8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 동안 미 수은은 자국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을 펼쳐왔고, 동 프로젝트에도 Citigroup과 함께 금융주선기관(Lead Arrangers)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미 수은의 이번 지원분은 GE의 압축장비 구매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2,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San Fernando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멕시코 북쪽 국경에서 중심부까지 총 연장 12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의 본선 파이프라인과 다수의 발전소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며, 주로 멕시코 북부 지역의 Burgos Basin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운송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스폰서는 멕시코에서 오랜 사업경험을 갖고 있는 El Paso Energy와 Pemex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EPC 계약자는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업체의 자회사인 Techint Mexico로서 이탈리아의 SACE도 동 프로젝트에 관심

을 보였으나, 미 수은과 Citigroup을 비롯한 5개 금융기관의 주선으로 금융조달이 원활히 성사됨에 따라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번 계약은 take-or-pay¹⁾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멕시코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알타미라(Altamira)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멕시코에 대한 대출은 지금까지 담보조건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멕시코의 부채규모가 크지 않고 S&P의 국가신용등급도 BBB-로 투자가능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본건에서는 상업은행들이 별도의 보증조건 없이 1억 1,700만 달러를 10년 만기로 대출하였으며, 이는 멕시코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첫 번째 무담보 대출건으로 기록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의 경기 부진과 남미 지역의 정치불안 속에서도 수월한 금융조달 등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공사수행을 위한 통행권 취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필요한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되어 곧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순 영】

1) 최종 상품이나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